

Vol.229

2021 05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3)

박해와 선교현장
시리아 (Syria)

사역보고
시리아 10년 내전 속 ‘희망의 햇불’ -교회

현장스토리 1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잊게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코로나19 이후 선교방향을 생각한다

김영복 목사(성실교회 담임, 한국오픈도어 부이사장)

그동안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멈추어 성찰해야 할 때를 알리는 여러 신호 중 하나인 줄 안다. 우리는 돌아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년 8월로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서울 성북구 모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 출입문에 적혀 있던 적이 있었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 문구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변화의 흐름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교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무엇보다 대면이 당연한 일상인 교회생활(예배, 중보기도)을 비대면으로 바꾸었고, 접촉이 필수적인 성도의 교제(만남, 소그룹 활동 등)를 갖지 못하게 하는 언택트가 필수가 됐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역이 위축되고, 특히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파송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선교현장의 코로나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더욱 선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오픈도어가 지향하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교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선 신규 비자

발급이나 비자 갱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프리카 T국 선교사도 현재 비자기간이 끝났으나, 현지 정부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선교현장을 옮기거나 최악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기로에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에 번진 “시노포비아(sinophobia)”가 같은 아시아계인 한국선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선교 활동들이 제한된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지금까지 행해온 선교를 들여다볼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로 방향을 돌이킬 기회도 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사역은 너무 개인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택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온택트(접촉을 최소화 하는)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선교현장을 떠나 귀국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하는 등 온택트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온택트 문화도 세례를 주어(?) 교회와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교회와 선교사, 선교사와 선교지 사역자 사이에도 영적이며 공정해야 하는 것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이 흐름에서 낙오될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시며, 그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Lord, have mercy on us)” 간구할 때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신음소리를 듣고 박해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복음에 빛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한다.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3)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시리아
- 12 사역보고 - 시리아 10년 내전 속 ‘희망의 햇불’ -교회
- 14 현장스토리 1 -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잊게 도와주셨습니다”
- 16 현장스토리 2 - 큰 꿈을 꾸는 시리아 난민 청년, 주안(JOUAN) 이야기
- 18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20 2021년 어린이 박해지도
- 2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 22 희망의 선물 캠페인 - 라주 목사님의 종이접시 공장

2021년 05월호 | 통권 229호 | 등록번호-성북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동: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3)

- 돈을 벌기 위한 중국행, 인신매매와 탈출 -

마리아 자매

배급이 끊어진 상황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법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배워가기는 했지만 새롭게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큰 과제였다. 역시나 충분하지 못한 식량과 영양 사정이 문제였다. 쌀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밥을 지었는데 옥수수가 워낙 딱딱하다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아이가 소화하기에는 버거웠다. 아나나 다를까, 아이들이 먹은 옥수수가 하나도 소화가 되지 않고 변으로 나왔다. 이리다보니 아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뺨뺨 말라갔다. 특히 작은 아들은 거의 영양실조 걸린 아이같이 갈비 뼈가 아롱아롱하게 드러날 정도로 허약해졌다. 먹을 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입힐 것도 턱없이 부족했다.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연년생이었는데 그래도 성별도 다르니 아들 옷을 새로 입히

고 싶었지만 새 옷 새 신발은 꿈도 꾸지 못해서 누나 신발을 물려받았다. 그것도 신길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 가족이 가난하게 배를 굶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서 아니었다. 뼈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침부터 먹을 것을 구하러, 산 중턱 밭을 일구러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딸아이가 대략 5살 정도 된 때인 듯하다. 우리 집에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친정 오빠가 우리 집으로 왔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우리집에 눌러앉았다. 시동생 가족까지 왔다. 시동생은 다른 도시의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배급이 잘 나오

지도 않고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고 차라리 고향에 가서 살겠다고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고향에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 우리집을 두드린 것이다. 시동생네는 네 가족이 함께 왔다. 줄지에 우리 집 식구 넷에 친정 오빠와 시동생네 식구를 포함해서 아홉 식구가 되었다. 안그래도 좁고 먹을 것도 부족한 우리집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많은 인원이었다. 특히 부엌에 앉아서 가마 뚜껑을 책임진 내 어깨가 매우 무거웠다. 당시 장사를 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어린이들 (자료사진)〉

기 위해 외상으로 받아놓은 돌소금 한 톤과 술 200kg이 있었다. 이걸 일단 팔아다가 장사는 못하고 먼저 생활비로 썼다. 남편은 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팔기 위해 새벽 2시부터 집을 나섰다.

나는 동네 장터에 갔다가 남편 친구 아내를 만나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다.

“○○ 엄마, 중국에 돈 벌러 안 가겠는가?”

그 아줌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해주었다. 중국 연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한달에 300위안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석 달만 일하면 자기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 당시 막고 난의 행군을 통과한 때에 중국 돈 300위안은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게다가 전에 장사하겠다고 받아왔던 소금하고 술을 팔아서 모두 생활비로 쓰는 바람에 우리집은 빚이 엄청났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 아줌마의 제안을 마다하기란 어려웠다. 시어머니에게 중국 가서 석 달 돈 벌고 오겠다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웬일인지 순순히 허락해 주셨다. 아마 그 당시 동네에 중국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왕왕 돌곤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하셨거나, 또 우리 집 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듯 하다. 나는 중국에 가기 위해 준비했다. 먼저 일하러 간 남편에게 빼곡히 편지 2장을 써서 옷장에 잘 넣어 놓았다. 짐을 싸놓고 평소와 같이 밭에서 시어머니와 가을 배추를 심는데 마침 나를 중국에 데리고 갈 사람이 왔다. 마음 아플 것도 없고 빨리 돈 벌어서 빚 갚고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집합장소에 도착했다. 거기에 나 말고도 여자들이 있었다. 나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거기에 나에게 처음 중국 일자리를 이야기했던 아줌마와 국경 경비대 군인 한 명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을 건넜다. 첫 탈출이다. 강을 건너는 일은 아슬아슬했다. 비록 군인 한 명이 우리 일에 끼어 있으니 들킬 염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강 자체가 물이 깊어서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까치발을 들면서 어렵게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더니 강변에는 다른 브로커가 있었다. 우리를 데리고 온 아줌마는 원래는 식당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오늘은 일행이 많고 한 차에 타기에는 붐비니까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차로 이동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 가던 이 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우리 모두 내리라고 했다. 앞에 중국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 내려서 검문소를 피해 밤새 철길 사이로 걸었다. 나는 하필 북한에서 까치신이라고 부르는 뒷굽에 소리가 요란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는 큰일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신발은 손으로 들고 맨발로 걸었다. 발이 너무 아팠지만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더 컸다. 밤새 걸으니 해가 뜨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 사람들 눈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되자 브로커는 우리를 콩밭에 숨겼다.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 사이 브로커는 다시 차를 가지고 왔고, 우리를 태워 시내로 들어갔다.

브로커가 데리고 간 곳은 어느 아파트였다. 밤새 정신없이 강을 건너고 길을 걸은 터라 정말 시장했던 우리에게 밥을 주는데 하얀 쌀밥에다가 감자국에 김치를 줬다. 이게 웬 쌀밥인가 하고 우리 세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정신없이 먹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몸을 씻었다. 집에서 입고 온 북한 옷도 벗고 브로커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 숨 돌리고 나서 한 방에 앉은 우리 세 여자는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5살 먹은 친구는 결혼해서 이제 갓 1살된 아이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언니네 집에 아이를 맡겨 놓고 중국에 시집가서 아주 살려고 나왔다고 했다. 24살 먹은 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고 중국에서 일해서 돈 벌러 왔다고 했다. 나도 중국 식당에서 일하러 왔다고 했더니 24살 아이가 나와 같구나 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겠는데 어디서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소개받고 싶었다. 내친김에 옆방에 자고 있는 브로커를 깨워서 우리 식당 가서 일해야 되는데 구경이라도 갈 수 없는가 하고 물었다. 브로커는 깜짝 놀



〈근무교대를 하는 북한 국경경비대원 (조선일보)〉

라더니 우리 모두 다 시집을 가야 된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냐 시집은 무슨 시집이냐 했더니 자기는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뿔싸...

나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면 아줌마가 바로 인신매매꾼이었던 것이다. 이야기하는 품새를 보니 또 다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졌다. 시집 가는 줄로 알고 나온 친구야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브로커를 따라 가고, 일하러 나온 우리는 다시 북조선에 가자고 했다. 다시 돌아갈 계획도 없었다. 스스로 안전부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계획을 짜다가 밤새 걷고 중국에 왔다는 긴장감이 너무 피곤해서 일단 한숨 자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몇 시나 되었을까? 아직 밤이 어두운데 브로커의 아내가 우리를 깨웠다. 왜 깨우냐 했더니 지금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따라오라고만 했다. 우리는 북한에 다시 갈까라고 했더니 그 브로커의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 무릎 꿇어! 너희들 경찰 맛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괜히 겁을 먹고 하라는 대로 무릎을 꿇었다. 브로커의 아내는 경찰이 오면 너희들은 잡혀가서 혼쫓이 날 거라며 한번 당해보겠냐며 일장 연설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브로커와 아내도 경찰을 만나면 매우 곤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중국 물정에 너무 어두웠던지라 그런

사실을 몰랐다. 호통에 겁을 먹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는 한동안 이동했다. 그러더니 우리를 모두 내리게 해서 다른 차를 타게 했다. 한쪽 기사가 모는 차였다.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에게로 우리를 넘겼던 것이다. 그 차를 타고 꼬박 하루를 이동을 했다. 너무 차를 오래 타서 기진맥진할 즈음에 어느 동네에 도착했다. 새로운 브로커의 아내가 우리를 맞았는데 그 사람도 북한 출신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이 통할 것 같아서 그 여자에게 우리를 시집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도착해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뽀뽀했다고 나를 불러냈다. 인사할 새도 없이 나와서 보니 남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이미 팔린 것이다. 그들에게 이끌려 다시 또 한참을 차를 타고 이동했다. 도착해보니 어느 산골의 광산 마을이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계속 눈물이 나왔다. 내가 너무 우니까 한 남자가 중국말로 나에게 무어라 말을 걸었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그 때부터 손짓 발짓이 동원되었다. 그간 급박하고 고된 일정으로 워낙 지쳐있던 나에게 그 사람이 손 시늉으로 자라고 했다. 마음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날 깨워서 일어나 보니 동네사람들이 집 앞에 모두 모여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북한여자라고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구경하러 온 것이다. 나는 대화가 안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그 다음날에는 잔치를 치르는데 나는 주는 밥을 먹고 방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잔치 마치고 남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40대 중반의 지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였다. 처음에는 중국말을 모르다보니 그 사실도 몰랐다. 한 열흘 지나니까 행동이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장애인이거나 하고 알았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정도 없는 이 사람과 시골 캄캄에서 강제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고향에 아들딸이 있지 않은

가?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맘을 먹었지만 동네가 얼마나 외진지 도통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를 시작으로 그 동네에는 북한여자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팔려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숫자가 8명이나 되었다. 팔려온 북한 여성 중에는 17살밖에 안되는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팔려온 우리 북한 여성은 21세기 성노예나 마찬가지였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려가서 강제로 성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나를 산 남자는 지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인성이 못되어서 그랬는지 살가운 대화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평소에는 바보처럼 행동하다가 밤에는 그저 성행위만 하려고 했다. 하루는 이 남자의 강압에 너무 괴로워서 내복바람으로 다른 집으로 도망을 쳤다. 나 좀 살려달라... 숨겨달라... 애원을 했지만 따뜻한 인정 대신 돌아온 것은 주먹과 발길질이었다.

집에서는 우리가 도망갈까봐 감시가 항상 있었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앞에서도 사람이 지키기까지 했다. 생활 환경도 척박했다. 동네 자체는 철광석 광산이라 못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못했고 산골에 위치하다 보니 너무 추웠다. 낙이 없는 그 땅에서 그나마 다른 북한 여자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함께 울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꼭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 고향을 그리워했다. 내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아이를 두고 온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덩달아 육체도 쇠약해졌다.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해서도 링거를 맞았다. 링거를 끊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여기서의 삶이 희망이 없고 빠져 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에 그냥 죽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나는 맞고 있던 링거병으로 스스로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자해 소동 이후 감시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억눌림이 심할수록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다. 하루는

진짜 도망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주머니에 10위안을 챙겨서 가방을 작게 매고 뛰기 시작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라 금세 추격당했다. 5리 정도 갔는데 오토바이에 탄 남편과 시동생이 나를 추격해서 붙잡았다. 나는 엄청나게 두드려맞았고 오토바이 뒤에 죽은 짐승을 실어 나르듯 그렇게 실려서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나는 남편에게 북한 집 가고 싶다고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울면서 말했지만 그 집 사람들은 내 손바닥에 숫자 14,000을 그렸다. 자기들이 나를 그만한 돈을 주고 샀으니 가려면 이 돈을 내놓고 가라는 것이다.

두 번 도망칠 기회를 놓쳤으니 나에게 대한 경계심, 감시는 매우 극심해졌다. 여러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의 꿈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에 팔려온 다른 북한 여성 중 한 명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친구는 중국에 아는 북한 사람들이 몇 있고 연락이 되는 친구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외에 17세 아이도 탈출하겠다고 해서 함께 탈출하기로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마침 설 명절이 되었다. 북한 여성들끼리 같이 방에 모여서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차로 1시간 넘게 달렸는데 마을에 남아있던 주선해준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온 동네가 뒤집히고 오토바이 행렬이 우리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추격을 뿌리치고 인근의 큰 도시까지 내달렸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은 조선족하고 북한 분인데 이분들도 브로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정이 있는 분이였다. 함께 탈출했던 17세 아이는 다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시집을 가고 나는 그냥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연고 없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시리아 Syria



인구 : 18,924,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94.3%), 기독교(3.6%), 무신론/불가지론자(2.1%)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677,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12위, WWL2020-11위
 기독교박해 지수 : 81점
 주 박해 요인 : 독재정권, 이슬람의 억압, 혈연집단의 억압,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시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시리아는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은 무슬림이어야 하고, 이슬람 법이 입법의 주요근간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무슬림 위주의 사회로 수니파 무슬림이 74%이며, 알라위파, 이스마일리와 시아파 무슬림이 13%를 이룬다.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인 지역에서 무슬림 또는 드루즈파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 개종은 이들에게 큰 수치이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부족주의는 이슬람과 혼합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발견되면 가족과 지역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지도자인 셰이크가 개종한 이들의 처형을 허가할 수 있고, 무슬림들이 그들의 재산,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 빼앗도록 허가할 수 있다. 북동부 시리아의 자치구에서는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개종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이 금지된다. 정부는 역사적 전통교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용적이다. 이들은 친정부 성향으로 여겨져 상당히 좋은 입지를 누렸다. 그러나

내전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내전과 기독교 박해

시리아에는 180만 명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으나 10년간의 전쟁으로 80만 명도 채 안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군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역사적 전통교회 지도자들은 외견상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공격과 납치, 살해의 타깃이 되었다. 역사적 전통교회들은 IS와 기타 폭력적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이슬람센터로 변했다. 복음주의 교회지도자들 또한 박해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서구지향적이고, 전도활동을 하고, 소수분파들로 교황이나 주교와 같은 강력한 리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 지역을 이슬람국가(칼리프 통치지역)로 만들면서 그 지역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그곳을 떠났다. IS가 장악하자 고향을 버리고 떠난 크리스천들은 IS가 격퇴된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이슬람 과격단체들에게 납치된 5명의 전통교회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2019년 3월 이슬람국가는 제거되었으나, IS는 여전히 교묘한 공격들을 감행하고 기타 이슬람 과격단체들(Hayat Tahrir al Sham, Jaish al-Islam)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은 시리아 인구의 약 15%를 통제하고 있다. 터키군이 개입하여 2019년 10월 이후로 시리아-터키 접경지역을 소위 "안전지대"로 부르지만, 터키는 쿠르드 지역 통제를 위해 아랍 이슬람 전사들을 이용하고 있다. 터키군은 쿠르드족과, 크리스천들과 야지디족을 포함하는 기타 종족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강간, 납치, 살해를 자행했다.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지역(TSO)에서 터키군은 쿠르드족과 크리스천들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식수공급을 여러 차례 끊었고, 크리스천 소유 건물들을 빼앗았다.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무정부상태에서 시리아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부패한 나라에 올라있다. 한 예로, 군대의 검문소를

통과할 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 부유하다고 알려진 크리스천들이 몸값을 받으려는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 크리스천들은 정치권력이 없어 쉬운 타깃이 된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터키군과 이슬람 무장군들이 지배한 지역에 만연하다. 이슬람 드루즈파가 지배하는 지역과, 알라위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심하다. 알라위파가 지배하는 라타키아에서는 어린 크리스천들의 납치가 주요 걱정거리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 때문에 범죄와 부패가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내전 초기에는, 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감시가 덜했으나, 정부가 권력을 되찾으면서, 반체제 요소가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심문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교회들의 보호주의

시리아 내전 속에서 역사적 전통교회 공동체들과 기타 비전통 개신교 단체들 사이에 다리들이 놓여졌다. 주로 전통교회 사제들과 개신교 목사들 사이의 개인적 교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역사적 전통교회 원로 지도자들은 비전통 개신교회들과의 관계맺기를 거부한다. 이들 역사적 전통교회 원로들은 비전통 개신교회들이 서구의 정치적 활동과 연계하여 조국을 배신한다고 비난한다. 또한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주의자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취급한다. 이런 예들이 많다. 2020년에, 그리스정교회, 시리아정교회, 그리스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들이 정부로 하여금 모든 복음주의자들의 교회시설 밖 활동을 금지시키도록 만들었다.

시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이슬람 반군세력이 지배하는 이드리브(Idlib) 같은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이 신앙을 비기독교인과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보통 죽음으로 처벌받는다. 쿠르드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무슬림들의 개종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은 있다. 정부군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신앙을 나누는 것이 전도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전도는 법으로 금지된다. 그 밖에는, 정치적 언급 또는 타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글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시리아 북동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금지된다.

• **가정 영역** : 무슬림 출신의 크리스천 여성이 기독교 가정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다. 종교간 결혼을 하면 엄청난 사회적 상처를 입게 된다. 배척과 차별, 박해 심지어 가족에 의한 살해까지 당한다. 아내 또는 딸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무슬림 남자의 명예에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문화적 종교적으로 살해가 허용되지만 대개는 이혼으로 해결한다. 이혼할 때, 양육권은 무슬림인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 때문에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크리스천 엄마들도 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무슬림이다. 부모가 법적으로 종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쿠르드 지역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 **지역공동체 영역** : 시리아 전역, 특히 이슬람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감시를 당한다.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개종한 크리스천들과 역사적 전통교회에 속하지 않는 개신교 단체들이 특히 감시를 받고 설교가 검열을 당한다. 무슬림에서 개종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된다. 크리스천들은 취업

할 때 차별을 당한다. 공식적으로는 종파주의가 금지되고, 크리스천들도 군대와 정부기관에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속한 알라위파가 불균형적으로 요직을 차지한다. 수니파 무슬림이 시장을 지배하는 알레포 시에서는, 크리스천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국가 영역** : 2012년 시리아 헌법은 대통령이 무슬림이어야 하며, 이슬람법이 입법의 주요 근간이어야 함을 규정했다. 이는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었다. 헌법은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쿠르드가 지배하는 AANES지역 외에는 이슬람에서의 개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슬람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샤리아법이 적용되며, 이는 수니파가 아닌 모든 종교단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정부군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성인남성은 군복무가 의무이고, 피할 경우, 투옥이나 강제징집을 당한다. 이는 시리아 크리스천 난민 남성들이 시리아로 되돌아가기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슬람 반군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훼손되었다. 특히 십자가가 제거되었다.

• **교회 영역** : 내전의 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 예배들은 감시를 당하고 교회지도자들에게는 교인들로 하여금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게 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교회지도자들은 자극적인 설교를 피해왔다. 무슬림을 전도하거나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언급을 피했다. 이슬람 반군들이 지배하는 지역들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파괴되었거

나 이슬람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항상, 종교적 분파주의와 공동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기존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WWL2021 박해보고

(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기간) *보고된 최소한의 사례

살해된 크리스천 수	9명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480건
크리스천 사업장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395건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600명
신앙 때문에 조국을 떠나야 한 크리스천 수	263명

※ 2020년 7월에는 2명의 MBB를 포함한 3명의 크리스천들이 터키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의해 아프린에 구금되었다. 2명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1명의 MBB는 지금도 구금되어 있다. 최소한 70명의 크리스천들이 카미실리의 한 교회 공격 사건에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슬람에서 개종한 다른 MBB성도 최소한 12명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보고가 있다.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단체들(TSO)이 크리스천 주택 205채, 크리스천 75가정 소유의 사업장 120곳을 약탈했다. 터키의 공격으로 863명의 크리스천들이 집을 떠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확인된 숫자일 뿐 실제로는 수천 명일 수 있다.

시리아 교회 역사

바울이 회심한 곳이 시리아의 다메섹(다마스쿠스) 도상이다. 신약성경은 시리아의 다메섹과 안디옥에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기독교신앙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22명의 시리아 주교들이 참석했다. 박해 또한 있었다. 안디옥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많은 순교자들의 한 예이다. 7세기까지 기독교는 시리아의 주요 종교였으나, 이슬람의 2대 칼리프 오마르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모든 크리스천 공직자들을 내쫓았고, 그 후 모든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복장을 해야했다. 8세기에, 타누크족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으로 강제개종을 당했다. 855년 시리아 흠즈에서 크리스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지도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며 900년 경에

이르러 시리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무슬림이 되었다. 12-13세기에, 시리아는 여러 십자군전쟁의 전쟁터였다. 1124년 알레포의 성당은 모스크가 되었다. 1350년에 이르러, 기독교는 소수종교가 되었다. 100만 명 인구 중, 겨우 10만 명만이 크리스천이었다.

시리아가 이슬람 오토만(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일부가 된 16세기에, 정교회와 야콥파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슬람 술탄으로부터 시리아에서 독립된 공동체로 인정을 받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오토만 제국이 패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오토만 제국의 멸망으로 크리스천을 표적으로 하는 주요박해의 시대는 끝났다. 박해의 한 예로 1860년, 다마스쿠스에서 3일간의 대학살로 25,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한 적도 있다.

한편, 1915년부터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 크리스천들이 대량학살을 피해, 또는 추방되어 시리아로 왔다. 현재 대부분의 시리아 크리스천들은 역사적 전통교회 소속이다. 주로 정교회와 카톨릭이고 일부 전통 개신교단도 있다. 그리고 시리아 여러 지역에 비전통 개신교회들이 있다. 특히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쿠르드족 지역들에 많다. 내전을 겪으며, 역사적 전통교회 사제들과 개신교 목사들 사이의 개인적 교류에 의해 다리들이 놓여졌다.

시리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450,000명(66.5%)
카톨릭	200,000명(29.5%)
개신교 기성교단	23,000명(3.4%)
독립교단	2,500명(0.4%)
무소속	1,000명(0.4%)
이중소속	0명(0.0%)
합계	676,500명(99.9%)

시리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시리아 국내외 난민을 위해, 내전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리아 MBB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리아 10년 내전 속 '희망의 횃불' -교회

2011년 3월15일, 아랍의 봄에 힘입어, 시리아 알레포 시에서 시작된 작은 시위가 끔찍한 내전으로 번졌다. 10년간의 내전이 시리아인들에게 남긴 것은 “살아있는 악몽”이라고 UN 조사관은 말한다. 10년간, 약 380,000명이 죽고,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약 1,320만 명에 해당한다. 그 중 절반(660만 명)은 피난처를 찾아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이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에 남아 국내난민이 되었다.

“시리아의 파괴된 정도를 전체적으로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21세기 들어 세계가 목격한 가장 큰 범죄들의 일부를 감내한 것입니다.”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지난 3월10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약 60퍼센트의 시리아 국민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일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90퍼센트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라고 국제적십자자연맹이 발표했다.



비록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시리아 교회는 이 위기에, 희망을 가져왔다고 오픈도어 관계자는 말한다. 교회들은 다른 현지 종교단체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 트라우마 케어, 교육, 생계지원 프로젝트, 직업 훈련 및 기타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이를 돕기 위해, 오픈도어는 2016년,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픈도어는 2013년 이후로 9,108가정을 돕고 100만개 이상의 식량꾸러미를 어려운 가정들에 전달했다. 2017년 이후로, 시리아 지역교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15개 도시에, 40개의 “희망의 센터”를 세웠다. 현지 교회들이 “희망의 센터”들이 되어서 지역공동체에 도움과 격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희망의 센터가 된 교회들 외에도 110개의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 500채 이상의 주택이 보수되었으며, 1,730개 이상의 수입창출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지난 5년간, 평균 15,000 가정에 매년 겨울 후원패키지를 전달했다. 연간 약 12,000명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러나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알레포 시의 얼라이언스 교회 선한목자 센터 매니저 중 한 사람인 바르케브 형제는, “식량 패키지에 넣는 음식 항목을 전보다 줄여야 했어요. 빠지게 된 항목도 필요한 것들이예요. 이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 일을 하는데 수입은 너무 적어서 생필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요.”라고 오픈도어에 전했다.

단순구호를 넘은 희망의 사역에 대해 오픈도어 시리아 코디네이터 무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지원도 변했어요. 단순 구호에서 다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음식과 거처만으로는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수입창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픈도어의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은 2022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잊게 도와주셨습니다”

53세의 지하드 목사님과 그의 교회가 시리아 난민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어 가는 이야기



지하드 목사님이 난민촌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달려와 그를 둘러싸고 어른들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난민촌은 정부가 제공하지 않은 비공식, 일종의 불법난민촌으로, 일부 땅주인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했다고 몇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땅주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격려하며,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하드 목사님의 참포도나무 교회는 이 난민촌 근처에, 학교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 하나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한 엄마가 말합니다. 그녀는 시리아 이德利브에서 왔고, 다른 모든 난민들처럼 언제 돌아갈지 모른 채 이곳에 지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도시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갈색의 긴 겹옷을 입은 무슬림 남성 사투프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데, 어렵지만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리아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하나씩 제공해주었습니다.

2012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당시 교인들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과 여러 교실과 다른 방을 가진 교회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있는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전쟁이 막 시작되고 전쟁이 이웃 나라들까지 번지면서,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15분이면 가는 국경지역 베카 계곡은 약 7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캠프를 향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비슷한 난민캠프 여러 개를 지나쳐 왔고, 시리아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5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교회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역자 중 한 명은 난민들의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첫 후원금을 받았고 100가정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는 거의 5,000가정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돕길 원합니다.”

지하드 목사님이 시리아인들과 지금 소통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시리아인들이 레바논을 차지했고, 그들은 시리아의 위기가 발생하기 6년 전 레바논 영토를 떠났습니다. 제가 8살 때, 레바논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 민병대에서 우리를 군캠프로 데려가 무기를 사용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인들은 적이다’라고 세뇌당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시리아인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살고 있음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진리를 알기 위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함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들은 난민을 돕는 교회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인들을 돕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저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투자하거나 아니

면 IS가 그들에게 투자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음식과 구호품으로 그들을 돕기 시작한 직후, 그들은 시리아 어린이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레바논 학교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수업 일정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 지하에서 비공식적 학교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두 개의 난민 캠프에 교실 여러 개를 가진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 주차장에서 교실을 만들어 1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700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5학년이 되고 학교를 떠날 때가 되면, 아이들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아이들은 어느 학교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드 목사님은,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난민 어린이들은 극단주의자가 되거나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빠지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수십만의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글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스포츠 활동과 성경 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캠프에서 진행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변화를 만듭니다. “단 한 달 만에 당신은 이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잊게 도와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들 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녀가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친척을 잃는 것을 목격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사를 두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트라우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예배’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대부분 비그리스도인인 부모들도 이 예배시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노래를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사진작가가 카메라에 담는 모습을 보며 목사님을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들도 함께 웃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중동을 되찾자

지하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십만의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한계를 가진 채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새 모든 사역들이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집합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70명의 전임 리더들이 있습니다. 난민들 스스로 난민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들은 난민들의 정신적 상태, 살아온 배경, 억양, 언어,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원 중 60여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난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이후, 우리의 비전과 기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중동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몇몇 리더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도록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부 시리아인들은 이미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여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른 많은 교회들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는 시리아 난민 청년, 주안(Jouan) 이야기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그날 밤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작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안은 그들이 터키-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도망쳐야 했는지를 매우 잘 기억합니다. 시리아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서 가족들은 급히 레바논으로 도망쳤습니다. “시리아에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날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주안은 말합니다.

8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서 그의 세계는 다시 뒤집어 졌습니다. 15세에 회심한 19세의 시리아인 주안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후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남부에서 과수원 관리를 하며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가족의 장남, 주안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적은 수입으로 겨우 살고, 그와 동생들은 교회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주안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되다

주안은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 니하드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주안을 베이루트로 초대하여 함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지루했으므로 그는 처음으로 교회 방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어요...저는 니하드 목사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도 무슬림으로 자라셨는데 정말 온화한 분이셨어요. 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저를 움직인 것은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처하신 고통을 보았고, 나쁜 상황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목사님의 선물인 오디오 성경과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저는 성경책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한 무슬림이었고,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무슬림이지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저녁, 저는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랐고, 두려워했습니다. 저에게 신은 어둡고 검은 형체였으며, 제가 알기로는 신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느꼈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믿기 힘들었고 교회 출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목사님이 방문하셨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열쇠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개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창조적 기적으로 큰 꿈을 꾸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학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를 낙제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답을 내도 저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시험인 연말 기말고사에서 저는 최고의 수학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공부, 언어, 수학에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 하나님은 제게 재능을 주셨고,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음악, 그림에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 저는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인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때로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쿠르드어만 알던 주안은 이제, 영어, 아랍어도 구사하고 러시아어도 스스로 배웠습니다. 자유시간에는, 플루트, 색소폰, 부주크(쿠르드 악기)를 연주합니다. 집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은 모두 그가 그린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초상화와 어둠에서 빛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천사의 그림이 눈에 띕니다.

이슬람지도자인 셰이크 이맘의 딸이었던 주안의 어머니는 확신에 찬 무슬림으로, 아들의 개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언니(주안의 이모)가 사는 마을에서 반군들이 약국을 파괴했는데, 당뇨약이 다급한 이모는 주안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안은 이모를 위해 기도했고, 다음날 이모는 전화로, 반군들이 집에 와서 필요한 약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적도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주안의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그후 어머니의 심장병도 주안의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근처 교회에 갑니다. 다음으로 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일 것이며 주안은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주안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했고,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안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09 나이지리아



인구
2억,620만 명 / 기독교인 9,540만 명
지도자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박해지수 (5점 증가)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북부와 중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한 공격들이 흔하고 점점 더 남쪽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공격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살해되고 재산과 생계수단이 파괴당한다. 이 무장단체들에게 크리스천 여성들은 빈번하게 납치와 강간을 당하며 때로는 무슬림과 강제결혼을 당한다.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나이지리아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강하게 합니다. 제자훈련, 박해대비 훈련, 교육, 지역개발, 긴급구호, 트라우마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 성폭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여성과 소녀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10 인도



인구
14억 명 / 기독교인 6,740만 명
지도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박해지수 (변동 없음)



힌두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국민이 힌두교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한다. 극단주의자들은 특히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BBB)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신체적 공격을 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하며 힌두교로 돌아오라는 압박을 계속 받는다. 반개종법(현재 9개 주에서 채택, 더 증가할 것) 또한 크리스천들을 위협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인도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박해 대비훈련, 성경 전달, 생계와 경제지원, 개발, 옹호사역 등을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담대한 복음 증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옴.
- 인도 성도들, 특히 새신자들이 힌두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 긴급구호를 진행하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의 용기와 지혜와 안전을 위해.

11 이라크



인구
4,150만 명 / 기독교인 175,000명
지도자
바르함 살리 대통령
박해지수 (6점 증가)



이라크에서 작년에 폭력시위가 반복되었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크리스천 박해를 증가시킨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활동하며 크리스천들에게 공격과 납치를 자행한다. IS는 이라크에서 격퇴되었지만 그 잔인한 크리스천 박해의 트라우마는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지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박해때문이다.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이라크 교회 성도들을 지원합니다. 성경배포, 제자훈련, 긴급구호, 생계대출 포함 자립 지원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폭력이 종식되고 이라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 이라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도록.
- 이라크 교회를 섬기는 용감한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위해.

38 요르단



인구
1,020만 명 / 기독교인 180,000 명
지도자
압둘라 2세 국왕
박해지수 (변동 없음)



요르단은 관용과 종교간 대화의 햇불로 자처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크리스천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들이 가장 박해를 받기 쉬운데, 특히 가족과 그들의 개종을 반대하는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정부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회들은 당국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그렇다. 전도활동을 하거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을 돕는 성도들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위협과 억압을 받을 수 있다.

오픈도어는 요르단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앙훈련, 구호와 재할 프로젝트들,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시도록.
- 요르단의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더 종교적 자유를 개방하도록.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복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복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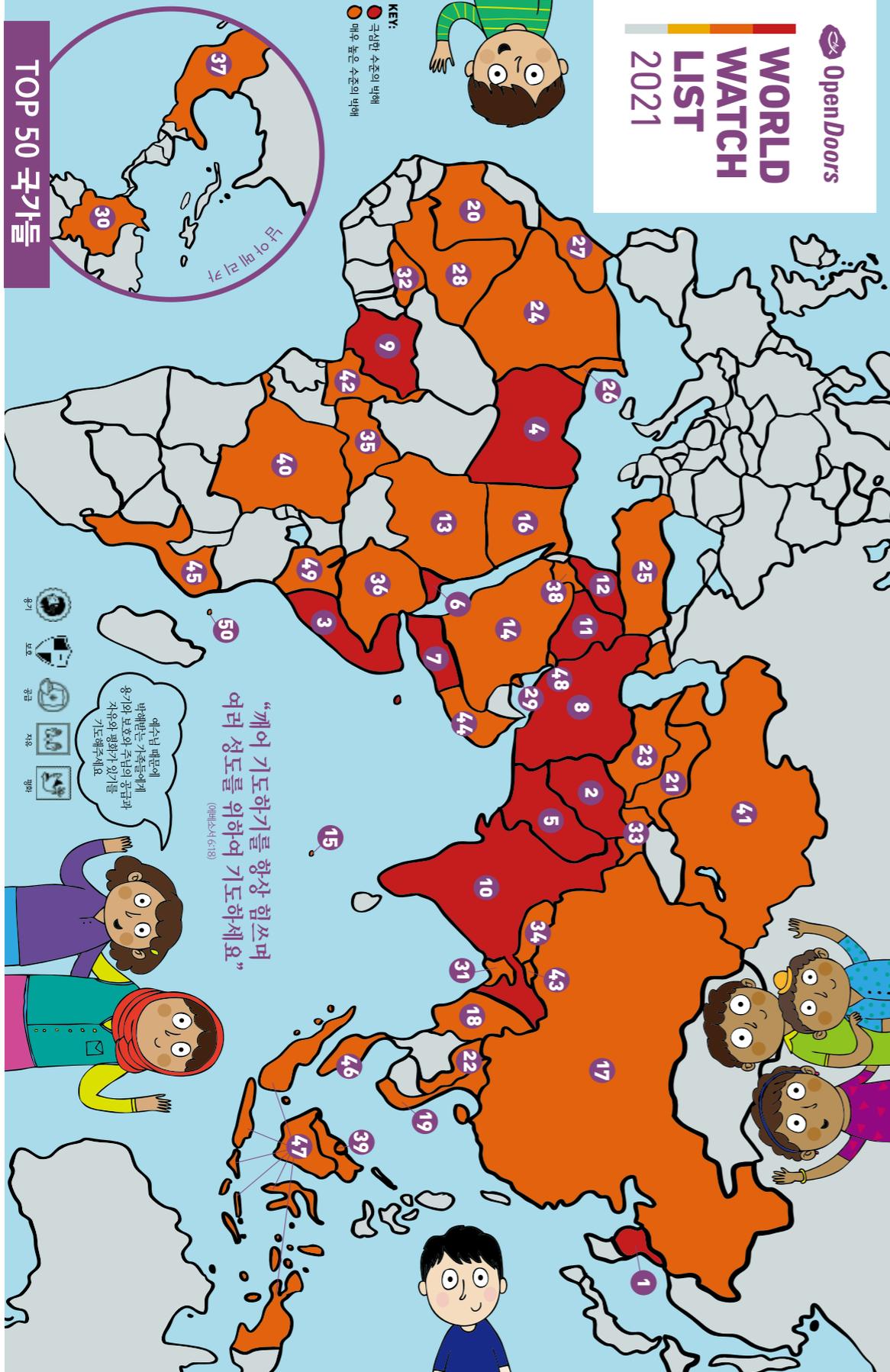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KEY: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TOP 50 국가들

라주 목사님의 종이접시 공장

라주와 안키라는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성장하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라주와 안키라 부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라주에게 자기들의 발을 찢는 행위까지 시켰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지파트너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부부에게 법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에 나뭇잎으로 만든 1회용 접시들을 만들어 판 경험이 있기 때문에, 1회용 종이 용기들 만드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기계와 초기자본을 제공했습니다. 라주 목사님은 이제 고용기회가 생겨 '우리 모두'를 도와준 것이라고 감사를 전합니다.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희망의 선물’ 6번 (소식지 뒷면)

금액은 국가별 지역별 현장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롭게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단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